

“일본, 위안부 철저조사·책임자 처벌해야”

유엔 인권 수장 필레이 성명에 국제사회 핫이슈 부각

“한·일간 문제 아닌 국제 인권 메커니즘 속에서 해결해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를 규탄하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와 배상, 나아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유엔 인권 메커니즘 수장인 나비 필레이 인권최고대표는 지난달 6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과거사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에 이 문제의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즉각적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필레이 대표는 유엔 인권수장이 직접 나서 일본군 위안부를 ‘전시 성노예’로 표현하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일부 단체들이 피해자 여성들의 진실성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보수·우익 세력의 태도를 비난했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인권위원회 등 여러 유엔 협약기구와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규탄하고,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권고했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차갑조하기도 했다.

실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근 들어

붐물 터지듯 각종 인권관련 국제기구 회의에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으며 점차 세계 인권상황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도 국제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고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권 관련 국제기구들이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지난 7월 열린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와 배상을 권고했다. 또한, 최근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움직임을 규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이처럼 모든 인권 관련 국제기구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시선을 돌리게 된 것은 여성인권 특히 전시 여성 인권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표명한 필레이 대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필레이 대표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할 당시 “오래전부터 전쟁 중 강간과 성폭행은 전리품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부터는 전쟁범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필레이 대표는 이번 인터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의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책임자의 처벌은 매우 중요하며 책임자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인권침해를 더욱 조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에 자국 국민을 상대로 군위안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獨, 전후 첫 무기 제공 결정

70년만에 쿠르드자치정부에 미사일·소총 등

독일이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와 맞서고 있는 쿠르드자치정부(KRG)에 대전차 미사일과 소총 등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의 상황이 몹시 위태롭다”고 무기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무기는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30개, 대전차화기 팬저파우스트(PZF)-III 200개, G36 공격용 소총과 G3 소총 각각 8000정, 기관총 40정, 보병용 장갑차 5대 등으로 총 7000만 유로(약 935억원) 상당이다.

독일은 이들 무기를 3차례에 나눠 제공할 방침이며, KRG의 군조치 폐쇄에 대한 메르켈 총리의 연설을 청취한 뒤 절반 투표를 진행한다. 이 투표 결과는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독일 정부는 이외에도 보호장비·헬멧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와 맞서고 있는 쿠르드자치정부(KRG)에 대전차 미사일과 소총 등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의 상황이 몹시 위태롭다”고 무기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무기는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30개, 대전차화기 팬저파우스트(PZF)-III 200개, G36 공격용 소총과 G3 소총 각각 8000정, 기관총 40정, 보병용 장갑차 5대 등으로 총 7000만 유로(약 935억원) 상당이다.

독일은 이들 무기를 3차례에 나눠 제공할 방침이며, KRG의 군조치 폐쇄에 대한 메르켈 총리의 연설을 청취한 뒤 절반 투표를 진행한다. 이 투표 결과는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 “요르단강 서안 100만평 토지 수용”

팔레스타인 반발 예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유대인 정착촌 건설 확대를 위해 요르단강 서안 인근에 100만평 이상의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31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의 베들레헴 인근 토지 400헥타르(약 120만 평)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고 AFP와 dpa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정착촌 건설 감시 민간단체 ‘피스나우’는 198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토지 수용이라고 밝혔다.

수용 지역은 지난 6월 유대인 10대 소년 3명이 납치·살해됐던 장소 인근으로, 이스라엘 측은 이번 토지 수용이 이 사건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독립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지난주 성사된 휴전 합의도 위기에 처하게 됐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협상팀의 하비에르 아부 에이드 대변인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이스라엘 정부가 평화에는 관심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리비아 민병대, 폐쇄된 미국대사관 건물 점거

무장단체간 충돌... 치안 악화

리비아 민병대가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장악했다고 현지 치안 소식통들이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23일 트리폴리 공항 등을 장악한 이슬람계 민병대 연합 ‘파즈리 리비아’(리비아의 여명)는 미국대사관 단지에 들어가 주요 건물을 점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무장단체 간 충돌로 리비아의 치

안상황이 악화하자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월27일 트리폴리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모든 직원을 인근 튀니지로 대피시켰다.

민병대 측은 현재 비어 있는 미국대사관의 약탈을 막기 위해 대사관 구내에 진입해 일부 건물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대 측은 “대사관 직원들이 귀환할 때까지 여기에서 대사관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교통혼잡 3대도시

상하이·항저우·베이징

중국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는 어디일까?

전자지도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토나비(Autonavi)’의 최근 통계 정보에 따르면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베이징(北京)이 중국에서 교통이 혼잡한 3대 도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대만 연합보(聯合報)가 1일 보도했다.

이번 통계는 오토나비 사가 중국 25개 도시를 대상으로 차량의 평균 이동거리와 이동시간을 수집·분석해 교통 체증의 정도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칭(重慶), 선전, 광저우(廣州)시의 교통정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서 작년 한 해 1800만대 이상의 차량이 팔렸다.

중국은 차량 판매가 급증하면서 교통 혼잡과 공기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구매 제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친구 美 래퍼 평양서 ‘아이스 버킷’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혼성 3인조 힙합그룹 ‘푸지스’(The Fugees) 창설 멤버이자 그래미상 2회 수상자인 유명 래퍼 프라스 미셀(가운데)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평양 대동강변에서 깜짝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연출, 친구 2명으로부터 얼음물을 맞고 있다. 낯선 장면을 갑작스럽게 보게 된 평양시민들은 놀라 여러동절하거나 웃기도 했다. 국제프로레슬링대회 관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미셀은 난치성 질환인 루게릭병 치료법 개발 기부금 모금이벤트인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평양에 알려지지않아 이러한 행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4면 발행 · 호남최대부수

경주일보 ☎ 062-222-8111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공주서석초등학교출업, 전주고등학교출업]

서울대학교홍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 초혼		♀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판사, 검사, 법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법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